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6월 말부터 사도행전 통독을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기원과 성장, 특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던 교회가 어떻게 로마에 이르기까지 여러 지역에로 확장되어 갔었는지를, 달리 표현해 유대인이 중심이었던 교회가 어떻게 이방인이 중심이 된 교회가 되었는지를 증언합니다. 또한 이러한 교회의 탄생과 확장이 겉으로 보면 사도들의 복음선포의 결과이지만 이 모든 활동을 이끌어가시는 분은 성령이심을 증언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의 책'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이 달에는 초기교회가 그 성장 과정에서 직면한 시련들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특히 이방인 선교의 초석이 된 사도 바오로의 회심을 묵상하면서, 사도직 현장에서 직면한 상황들에 대처하는 지혜와 힘을 얻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 준비: 사도 바오로의 부르심

스테파노의 순교와 바오로의 회심을 기점으로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서서히 이방인을 향한 선교로 선회합니다. 저자는 바오로의 회심 사건을 유대인 중심의 교회에서 이방인에 대한 복음선포의 '준비'로 바라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 위에서 일어난 사건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 선포자 바오로의 '**소명(부르심)**' 이야기라 말할 수 있습니다(갈라 1, 11-2, 10 참조).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안에서 바오로의 회심 이야기는 세 번(9; 22; 26장)에 걸쳐 이야기될 정도로 중요한 사건입니다.

'새로운 길'을 따르는 이들을 잡아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기 위해 사울은 다마스쿠스를 향해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다마스쿠스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번쩍이며 그의 둘레를 비추었습니다. 그는 땅에 엎어졌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사울은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9,3-8 참조). 이는 바오로가 평생을 두고 쌓아 올린 '건물'이 한 순간 허물어져 버린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빛에 휩싸인 순간 그가 가지고 있던 하느님 상이 완전히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느님을 위해 교회를 완전히 없애 버리고자 했던 열렬한 바리사이로서 자신의 허상과 진실을 가차없이 맞닥뜨리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길 위에서 일어난 '예수님과의 만남'은, 하느님에 대한 헌신과 율법을 지키려는 그의 모든 노력이 비록 선의에서 비롯했지만 그 방향이 틀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니아스의 안수로 다시 보게 된 바오로는, 예수님 안에서 활동하신 분이 바로 하느님이심을 깨달았고, 급기야 예수님의 '박해자'에서 예수님의 '선포자'로 바뀌게 됩니다.

학자들은 바오로의 회심이 34/35년에, 그리고 그의 1차 선교 여행은 45년경에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필리 3, 12) 몸이 된 바오로는 하느님의 구원역사에 대해 새롭게 깨달은 진리를 선포하고 싶어 안달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그리 녹녹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기존의 유대교에 속한 유대인들은 배신자가 된 바오로를 죽이려 공모하였고, 예루살렘 신자들은 그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고향 타르수스로 돌아가 있는 그를 바르나바가 찾아가 안티오키아 교회에 소개하고 마침내 선교 여행에 동행하기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 이 10년의 세월이 바오로의 삶에서 어떤 의미가 되었을까요? 10년의 시간, 바오로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성경은 별로 말해주지 않습니다. 짐작하건 데 이 침묵의 시간은 바오로를 내적으로 보다 성숙하게 이끌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일어난 깨달음과 변화에 대한 성찰의 시간, 그리고 새로운 깨달음과 성찰을 재정립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안정되고 확실했던 것에서 빠져나와 새로운 길로 들어섰지만, 그 길은 아직 그에게 완전히 열려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 마디로 메마름의 시기인 동시에 성숙과 성장을 위한 인내와 정화의 시기로서 미래 복음선포의 토대가 마련된 시기라 봅니다. 사실 복음선포는 열정만으로도 그리고 감정과 의지만으로도 되지 않기에 바오로는 주님 안에서 더욱 단단하게 훈련되어야 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쓰실 때도 이러한 과정이 일어났고, 또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바오로를 통해 믿는 이들 각자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느님의 방법과 또한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를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을 특권으로, 박해를 통해 경계 너머에로

사실 복음선포는 처음부터 반대에 부딪히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박해와 시련도 복음에서 솟아나는 은총과 힘을, 복음선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활동을 무효화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사도들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다 잡혀 감옥에 갇히고 매질을 당하였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았음을 기뻐하였고, 제자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또는 이 집 저 집에서 가르치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사도 5,41-42 참조). 심지어는 스테파노의 순교 사건도 교회를 잠잠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은총과 능력이 충만한" 스테파노의 말에서 드러난 지혜와 성령에 대항할 수 없었던 유대인들은 귀를 막고, 스테파노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스테파노는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과 똑 같은 말, "주 예수님, 제 영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라는 말로 기도하며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날부터 예루살렘 교회는 큰 박해를 받기 시작하였으며, 사도들을 제외한 제자들은 모두 유다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져야 했습니다. 이제 막 힘차게 싹을 틔우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닥친 이 커다란 박해는 여린 나무를 심각하게 흔들어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어디에도 박해로 인한 혼란이나 불안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박해로 **흩어진 사람들은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사도 8, 4). 물론 제자들에게 이 박해는 큰 시련과 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강림으로 탄생한 교회는 박해와 시련, 사람들의 몰이해를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실로 박해는 복음선포에서 장애가 아니라 오히려 예루살렘이라는 테두리, 유대교라는 경계를 넘어 복음이 로마 세계 곳곳으로 확장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오로는 복음선포라는 사명 수행을 위해 자신이 감내해야 했던 노고에 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수고도, 옥살이도 더 많이 하였으며, 매질도 더 지독하게 당하였고, 죽을 고비도 자주 넘겼습니다. 여행하는 동안에 늘 강물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에게서 오는 위험, 이민족에게서 오는 위험, 고을에서 겪는 위험, 광야에서 겪는 위험, 바다에서 겪는 위험, 거짓 형제들 사이에서 겪는 위험이 뒤따랐습니다. 수고와 고생, 잦은 밤샘, 굶주림과 목마름, 잦은 결식, 추위와 헐벗음에 시달렸습니다.”(2코린 11,24-27) 그럼에도 사도 바오로는 지치거나 실망하기는커녕 이 모든 시련과 위험을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하여 겪는 ‘특권’(필리 1,30)이라고 하였습니다

복음선포의 역설적 진리

그렇습니다, 복음선포에는 항상 두 가지 측면이 함께 합니다. ‘고난과 치욕’, 그리고 ‘용기와 기쁨’이라는 두 가지 성격입니다. 사도행전 곳곳에 바오로의 서간 곳곳에서 우리는 이 진실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이는 복음의 본질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을 주님’이라 선포하는 것(복음의 핵심) 자체가 세상 사람들의 기대와 너무나 상반되기에 반대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바오로를 비롯하여 초대교회 선교사들은 가는 곳마다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담대하고 자유롭게 그리고 기쁨으로 복음 선포를 할 수 있었음은 그들이 하느님으로부터 힘을 받았기 때문이며 복음선포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선포에 따르는 이 역설적인 진리야 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도직 수행의 참 표징이 됩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의 삶과 특히 사도 바오로의 선교 체험 안에 드러난 북음선포의 이 역설적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사도직 현장에서 직면하는 오해와 갈등, 실패와 시련을 성장을 위한 발판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이끌어 줍니다. 동시에 우리는 각자 삶의 현장에서 이 역설적 진리를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살아갈 때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묵상자료

1. 사도행전 8장; 9,1-31
2. 회헌 제 5장 선교, 영성 본문 1-7